

선지서 개요

2017년 강의안

2017. 6. 24 수정

김효성 목사

목 차

이사야	3
예레미야	24
예레미야 애가	36
에스겔	39
다니엘	51
호세아	59
요엘	62
아모스	63
오바다	65
요나	67
미가	69
나훔	71
하박국	72
스바냐	73
학개	75
스가랴	76
말라기	80
구약 연구에 유익한 책들	83
복습 문제	85

이사야

서론

본서의 **저자** 이사야는, 옛 전통에 의하면, 유다 왕 므낫세의 통치 기간 중 톱으로 켜져 순교를 당하였다고 한다. 그의 사역 기간은 주전 740년부터 680년경이라고 보인다.

이사야서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며 다른 선지서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인용되었다(Poole).

불신앙적 비평학자들은 이사야 40장 이하를 ‘제2 이사야서’라고 부르며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익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비평적 견해가 잘못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야 40장 이하의 부분에 나타난 지리적 배경, 동식물에 관한 언급, 또 기후 조건 등은 저자가 바벨론보다 팔레스틴에 살고 있었음을 보인다. 예를 들어, 백향목, 디르사 나무, 상수리나무 등은 팔레스틴의 고유의 나무들이다.

2. 우상숭배에 대한 책망(44:12-17; 57:3-10; 65:2-4)은 왕국 말기의 상황에 맞고 포로 시대나 그 후에 맞지 않는다. 에스라, 느헤미야나 말라기 등을 보면, 포로 시대나 그 후에는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3. 이사야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의 용어나 문체의 차이점은 그것이 다루는 주제에 관계되며, 두 부분의 공통점 혹은 유사점도 많다. 예를 들어,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오직 5회만 나오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하나님의 명칭은 이사야 전반부에서 14회, 후반부에서 16회 나온다. 보수적 학자들은 두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들이 적어도 40-50개가 된다고 말한다(아취, 구약총론, 397쪽).

4. 이사야 후반부도 주전 7, 8세기의 선지자들 즉 포로 전의 선지

자들의 글들, 특히 미가의 글들과 문학적 유사성이 많다. 언어적으로, 이사야 후반부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특성인 아람어나 바벨론어의 영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전반부와 같이 순수한 히브리어로 되었다고 보인다.

5. 무엇보다, 신약성경은 이사야서를 둘로 나누지 않고 그 후반부도 이사야의 글로 증거한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3:3; 8:17; 12:17; 요한복음 12:38; 로마서 10:20 등이 그러하다.

이사야서의 **주요 내용**은 심판과 구원이다. 심판에 대해,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40, 42장)과 거룩하심이다. ‘만군의 여호와’(61회), ‘영광’(38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30회)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심판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 특히 형식주의, 우상숭배, 불의의 죄이며, 심판의 수단은 이방나라들, 기근, 칼, 포로, 불이며, 심판의 범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주위의 10개의 다른 나라들이다. 구원에 대해, 본서는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며(1, 10장),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며(4장),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며(2, 45장), 신적인 메시야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임을 증거한다(9, 53장). 본서에는 ‘남아 있는 자,’ ‘남은 자,’ ‘남는 자’라는 말이 모두 14회 나온다.

주요 내용 및 주석

[1-39장, 심판의 경고]

1장, 이스라엘과 유다의 부패상.

2-6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רִשְׁעָה**; rebel, revolt; 배반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리갠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더욱 패역하느냐(꺾고 turning aside, apostasy, rebellion; 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늘 그것을 짜며 짜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하나님을 거역함.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이 모두 30회 사용됨(1:4; 5:19, 24; 10:17, 20; 12:6; 17:7; 29:19, 23; 30:11, 12, 15; 31:1; 37:23; 40:25; 41:14, 16, 20; 43:3, 14, 15; 45:11; 47:4; 48:17; 49:7, 7; 54:5; 55:5; 60:9, 14).

10-15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 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헛된 제사와 절기, 종교의식들.

16-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伸冤)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회개하라, 악을 버리고 의와 선을 행하라.

18-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와 그의 입의 말씀이니라.”

21-23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었던도다. 네 은은 찌끼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伸冤)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살인, 음란, 뇌물, 불법이 가득함.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전능자’(גִּבּוֹרִים)→ ‘권능자.’

2장, 메시아의 시대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

2절,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메시아 시대, 신약교회 시대, 세계 복음화.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복음 운동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됨.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우상숭배의 죄악이 가득함. 그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의 제1 원인임.

11-12절,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

들로 낮아지게 하고"--교만이 큰 죄임.

17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3장, 유다의 멸망을 예언함.

1-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의지했던 것을 제하실 것.

4절, "그개[내개](MT, KJV, NASB, NIV)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赤子)들(םלילי) [어린아이들, 변덕스런 아이들(NASB)]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거슬러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격노케]하였음이라."

16-23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인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리 행하며[뿔부리면서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רעלי) [면과, 얼굴가리개, 목도리(바른), veil (NASB)]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부적]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겹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여성들의 교만, 음란, 사치.

24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술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כי) [그을린 얼굴]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4장, 시온의 회복.

2절, “그 날에 여호와와 짝(**מש**)[가지]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3절,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녹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남은 자들을 거룩케 하실 것. ‘남아 있는 자’(4:3; 7:22; 37:4), ‘남은 자’(10:20, 21, 21, 22; 14:22, 30; 15:9; 24:6; 30:17), ‘남는 자’(37:31, 32) 모두 14번.

5절,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신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차양]을 덮으실 것이며.”

5장, 포도원 비유.

2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으나 들포도를 맺음.

10절,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졌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1호멜=220리터, 1바트=1에바=약 22리터. 열흘같이=ten acres. 1acre=약 4,046.8m² (약 1,224평)

14절, “음부[지옥](KJV)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찍은 흙]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퍼졌느니라.”

6장, 이사야의 환상.

13절,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

니라”--유다의 완전한 멸망, 그러나 메시아로 인한 회복.

7장,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함, 메시아의 처녀 탄생 예언.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중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 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깥이[나무 토막]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9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 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65년 내에’--아하스 2년(740년)부터 예살핫돈(680-669년)까지. [참고] 아하스(주전 742-728년), 이스라엘 멸망(주전 722년), 앗수르 왕 예살핫돈(주전 680-669년)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여러 성들에 옮김(왕하 17:24), 므낫세(주전 669-633년)가 앗수르 왕의 포로가 됨(대하 33:11)(아마, 앗수르바니팔 왕(주전 669-633년) 때).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תִּיּוֹט)[표적]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메시아의 처녀 성탄(마 1:23)=초자연적 탄생. ‘처녀’(תַּלְמִּילָה)-결혼하지 않은 젊은 처녀(창 24:43, ‘청년여자’[‘처녀’(바른)]; 창 24:16의 תַּלְמִּילָה와 동의어로 쓰임).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이스라엘과 아람]의 땅이 폐한 바 되리라.”

8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하스바스라 쓰라”--이사야의 아들의 이름, 마헬살랄하스바스(노략이 속하다는 뜻).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앗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7:15-16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임.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① 스알야습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7:3) ② 마헬살랄하스바스 (‘노략이 속하다’)(8:3).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KJV)**”--거짓된 신비주의를 경계할 것.

9장,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신적 인격.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메시아의 사역의 시작지. ‘해변길’(Via Maris): 가장 중요한 길(다메섹--갈릴리 호수--므깃도--가사로 이어지는 길).

6-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메시아 예언. 신적 구주.

10장, 앗수르에 대한 심판, 남은 자.

1-2절,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불의, 토색, 불공평 등.

12절,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앗수르도 벌하실 것.

20-22절,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

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훼멸이 작정되었음이라.” ‘남은 자’(사 4:3)가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

11장, 메시아 시대.

1절, “이세의 즐거이에서 한 짝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한 ‘가지’(גֶּזֶל), 메시아 예언.

6-9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천년왕국 혹은 천국을 가리키며, 영적으로는 신약교회시대를 가리킬 것이다.

10절, “그 날에 이세의 뿌리에서 한 짝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메시아 예언, 세계 복음화.

11-12절,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15-16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고(海股)[바다의 혀, 홍해의 서쪽 갈래] (KJV, NASB)를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일곱 갈래로 나눠 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 있는 백성을 위하여 앗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

12장,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함.

2-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יהוה)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KJV에서는 4번 Jehovah로 번역됨(출 6:3; 시 83:18; 사 12:2; 26:4). 구원의 샘물(요 4:13-14; 7:37-39).

13장, 바벨론에 대한 경고.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14장, 바벨론 왕의 멸망.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cf. 히스기야 (주전 728-697)

9절, “아래의 음부[지옥]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음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바벨론 왕을 가리킴.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리라”—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작정과 섭리.

15장, 모압에 대한 경고.

1절, ‘길’=길하레셋(모압의 수도).

16장, 모압의 멸망.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17장, 다메섹에 대한 경고.

18장, 구스에 대한 경고.

19장, 애굽에 대한 경고.

18-19절,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마소라, Syr--הַרְרֵס עִיר [별망의 성]; DSS, Vg, 15개의 사본들--הַרְרֵס עִיר [태양의 성, Heliopolis]

24절,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앗수르와 함께 셋(שְׁלִישִׁיהָ)이[세 번째로](KJV, NASB, NIV)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초대 교회 시대에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이 중요한 기독교 도시가 되었음.

20장, 애굽과 구스가 사로잡힐 것임.

1절, “앗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참고] 앗수르의 왕들--티글랏 빌레셀 3세(주전 744-727년), 살만에셀 5세(주전 727-722년), 사르곤 2세(주전 722-705년), 산헤립(주전 705-681년), 에살हत돈(주전 680-669년), 앗수르바니팔(주전 669-626년).

21장, 바벨론, 에돔 등에 대한 경고.

11절, “두마[에돔]에 관한 경고라.”

22장,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1절, “이상 골짜기[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라.”

23장, 두로에 대한 경고.

15-17절, 두로의 70년 후의 회복

24장, 땅을 심판하심.

2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婢子)와 가모(家母)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채급하는[빛을 꾸어주는] 자와 채용하는[빛을 얻어쓰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22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

했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중간기 상태의 지옥.

25장, 하나님의 구원.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26장, 구원의 노래, 부활 예언.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קָדָם וְרָצוֹן)(stedfast mind, thought, purpose)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עַל־מַבְּטֵי וְרֶצֶן)이심이로다."=만세반석. 주 여호와(יְהוָה, יְהוָה)--BH 1, 2판(벵카임 본문), cf. BH 3판, BHS(벤아쉐르 본문).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 단 12:2.

27장, 이스라엘의 회복.

1절, '리워야단(רִיבְיָאֵדָן), 용(רִיבְיָאֵדָן)--바다 괴물이며 사탄을 가리킨다(계 12:9; 20:10).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28장,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11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이방 나라들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을 보임.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

은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메시아와 신약시대를 가리킴(롬 9:33; 벘전 2:6).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尤甚)할까[더 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29장, 예루살렘에 대한 진노.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30장, 이스라엘의 패역과 하나님의 은혜.

10-11절,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正路)[바른 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31장,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돌아오라.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32장, 메시아의 통치.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메시아, 의의 통치.

15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성령 강림.

17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하나님의 구원은 의이며 그 결과는 평안임.

33장,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34장, 열국에 대한 심판.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봄[억새꽃]이 자라서 사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14절, ‘수염소’ → ‘숫염소’

16절, “너희는 여호와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것들’--짐승들(Poole, JFB, 박운선).

35장, 새 세계.

5-7절,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뿔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랑의 늪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부들’--rush, 등심초, 파피러스풀, 갈대풀.

36장, 산헤립의 침입.

37장,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16절, “그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 하셨나이다.”

17절, 사시는 하나님.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38장,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각근(恪勤)히[신중히] 행하리이다.”

39장, 바벨론 사자의 방문.

[40-66장, 구원의 예언]

40장,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

1절,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회복을 암시.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 cf.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LXX, KJV; 마 3:3).

6-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여호와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15-17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같이, 빈 것같이 여기시느니라.”

19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우상에 대한 언급은 포로 이전 시대 상황을 보임.

30-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41장,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회복의 예언.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4절, “지렁이[벌레] 같은 너 야곱아”--벌레 같은 인생!

42장, 여호와와의 종.

여호와와의 종(42:1-4; 49:1-6; 52:13-53장; 61:1-3)--메시아 예언.

1-4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 . .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마 12:17-21).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붙렸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43장, 하나님의 백성.

1-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救贖)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오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5-6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이스라엘의 회복, 포로 귀환을 예언함.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

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하나님의 구원 사역. 메시아를 통한 구원 사역.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44-46장, 하나님의 주권

44장, 유일하신 하나님.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구속자(救贖者)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9-17절, 우상숭배의 헛됨을 말씀하심.

22절, “내가 네 허물을 뺨뺨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救贖)하였음이니라.”

24절, “네 구속자(救贖者)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찢으며 땅을 베풀었고.”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고레스’라는 이름을 예언함. (참고) 왕상 13:2,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 제사할 것이요.”

45장,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심.

1절, “나 여호와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5-7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 . .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주권적 섭리자, 종교다원주의 반박.

46장, 하나님께서는 절대주권자이심.

1절,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말독 신. 느보=벨의 아들, 학문의 신(NBD). 종교다원주의는 비진리임.

9-11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를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

47장,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함.

48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17-18절,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49장, 이스라엘의 회복.

6절,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

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행 13:47에 인용됨. 세계복음화에 대한 예언.

8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15-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공홀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50장,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함.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51장, 하나님의 의와 구원.

52장, 구원의 좋은 소식.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롬 10:15에 인용됨.

15절,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וְהָיָה יְהוָה לְכָל הָעַמִּים** Hiph impf 3ms **וְהָיָה** sprinkle(성경의 모든 용례들; BDB-레 4, 5, 6, 8, 14, 16장들) → “열방에 뿌릴 것이며”(KJV, NASB, NIV). 무엇일? (1) 자신의 피를. (2) 속죄의 복음을.

53장, 메시아의 고난과 대속사역.

5-6절,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대속사역 예언.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ἑὸν ἑκούριον)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제물(guilt offering)-보상의 뜻.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ἰσχυρῶς)[by the knowledge of himself(ASV), by his knowledge(KJV)]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ἰσχυρῶς)[의롭다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54장, 이스라엘의 영광스런 미래.

1-3절, 홀로된 여인 = 쓸쓸한 유대 교회. 세계 복음화의 전망.

7-8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55장, 하나님을 청종함.

1-3절, 구원의 초청.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쁨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6-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56장, 이방인도 받으심.

2, 4, 6절, 안식일을 강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2절),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6절).

57장, 우상숭배자들을 고치심.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58장, 나의 기뻐하는 금식, 안식일 강조.

13-14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59장, 하나님께서 자기 의로 친히 구하심.

1-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19절,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로대[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대항해 기를 들리라](KJV, ASV margin, NIV margin, NKJV).”

כִּי יָבוֹא כְּנֶגְדְּךָ זָר רֹחַ יְהוָה נִסְתָּה בּוֹ

ך--Pashta 분리(disjunctive)액센트

נִסְתָּה--act ptc f of נָסַף lift oneself up, become conspicuous or Polel pf 3 f of נָסַף flee, escape; (Polel) drive.

60장,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3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취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7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9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신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61장, 메시아의 구원시대.

1-2절, “주 여호와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62장, 예루살렘의 회복(헵시바, 뿔라).

4절,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הֶפְצִיבָּה)라 하며 네 땅을 뿔라(הַבְּלָא)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다.” תִּפְחֶנּוּ pleasure, delight.

63장,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함.

64장, 회복의 손길을 간구함.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패함이 있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

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65장, 하나님의 심판, 신천신지.

11절, 갓--바벨론 신=바알, 행운의 신. 르니--바벨론 여신=비너스, 운명의 신.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20절,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22절, “내 백성의 수한(壽限)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25절,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66장, 하나님의 심판.

2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3절, “다름이 없이 하는”→“없도다”(KJV, NASB, NIV)

7절,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בֶּן־אִדָּם)[male, a man child(KJV), a boy(NASB), a son(NIV)]를 낳았으니”--바벨론 포로귀환, 신약교회의 설립.

15-16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בְּאֵשׁ)[with fire(KJV, NIV), in fire(NASB)] 응위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도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륙 당할 자가 많으리니.” (참고) 살후 1:7-8.

22절,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23절,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 “한 월삭부터 다른 월삭까지”--달마다, 주마다.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꺼지지 않는 불, 지옥. 막 9:48.

예레미야

서론

본서의 **저자**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으로 주전 627년부터 주전 586년까지 약 41년간 사역했으나 유다 백성의 반응은 냉담했다.

본서의 헬라이어 70인역은 마소라 본문보다 8분의 1 정도나 짧고 장의 배열도 다르다. 그것은 마소라 본문과 다른 본문의 사본이 있었음을 보인다. 그것은 아마 대서자 바룩이 후에 예레미야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생겼을 것이다. 우리는 히브리어 본문에 권위를 둔다.

예레미야의 **주요 내용**은 심판과 회복이다. 심판에 대해, 심판의 원인은 죄이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을 저버렸고 그 언약을 무시했고 우상숭배했고 불의했다. 심판의 방법은 바벨론의 침공과 포로생활이다(13, 25장). ‘칼’(71회), ‘기근’(33회), ‘황폐’와 ‘멸망’(33회), ‘노’ 혹은 ‘진노’(24회), ‘온역’(17회) 등의 말이 많이 나온다. 회복에 대해,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생활로부터 돌아올 것이다(31, 32장).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3, 23, 30, 33장).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31장). 그들은 하나님을 알 것이다. 본서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47회 나오고, ‘안다’는 말이 73회나 나온다.

본서의 **특정적 진리**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이다. 이 진리는 구약 역사 전체에서 증거되지만,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되었다. 예레미야 17: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예레미야 13:23,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주요 내용 및 주석

1장, 예레미야를 부르심.

4-5절,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 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설교자의 사명.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회개와 믿음. 설교자의 사역.

11-12절,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살구나무 **קַדְמֹן** ; 지킨다 **קָדַם**

18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설교자의 담력.

2장,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1)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2)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민 16:22, “모든 육체의 생명(영들)의 하나님이어.” 영=생명. 시 36:9,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אָפְשָׁתְךָ**)[apostasy, 배교, 변절]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28절,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3장,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6절,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הִשְׁתַּחֲוִיתָ)[배교한, 변절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영적 행음—우상숭배,

7절,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הִשְׁתַּחֲוִיתָ)[배신한, 불신실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treacherous(KJV, NASB) 배반한, 반역한, 배신한, unfaithfulness(NIV). **הִשְׁתַּחֲוִיתָ** deceive, betray.

14절, “**배역한(הִשְׁתַּחֲוִיתָ)** 배교한, turning away, rebellious, backsliding(KJV), faithless(NASB, NIV), apostate)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4장, 임박한 심판.

5장, 백성들의 죄악상.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6장, 북방에서 파멸이 닥침.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벧학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옴이니라”—바벨론의 침공.

13-14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slightly, superficially, 대수롭지 않게, 피상적으로]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역사적 기독교 신앙, 전통적, 정통적 기독교 신앙, 곧 옛신앙을 파악하고 지켜야 함.

7장,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

3절,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5-6절, “너희가 만일 너희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 . . ”

11절, 성전을 도적의 굴혈로 만들.

12절, “실로에 가서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실로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정복과 정착 후 모세의 성막이 세워진 곳이었다(수 18:1). 사사 시대도 그러했다(삿 18:31; 삼상 1:3). 그러나 엘리의 범죄로 실로는 황폐케 될 것이 선언되었다(삼상 2:31-32). 블레셋 전쟁으로 법궤는 빼앗겼고(삼상 4:11, 18) 그 이후 실로는 황폐케 되었던 것 같다. 법궤가 유다 땅으로 돌아왔으나 기랴 여아림에 20년간 방치되었다(삼상 7:2; 시 132:1-6). 사울 때에는 법궤가 바르게 사용되지 않았다(대상 13:3). 한편, 모세의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옮겨져 있었다(대하 1:3).

16절, “그러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체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하

늘 황후--달=아스다롯, 해=바알.

8장, 이스라엘의 완고함.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10-11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한글개역 ‘탐남’ x → ‘탐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피상적으로]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렘 6:13-14.

9장,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함.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그렇게 되면 살륙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곡읍하리로다.”

2-6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רִמְּוֹתָם ‘배신자들’)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네 처소는 케홀[거짓]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케홀[거짓]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10장,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10-11절, “오직 여호와와 참 하나님이지요 사시는 하나님이지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

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 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14절,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 장색마다 자기의 조각 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11장, 하나님의 언약을 파했음.

7-8절,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 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강박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13절,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효와 같도다.”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12장, 악인의 형통을 보고 피곤치 말 것.

5절, “네가 보행자(혹은 ‘마부’)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일한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13장, 이스라엘의 교만을 낮추실 것임, 악에 익숙한 인생.

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23절,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는뇨?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인간의 전적 무능력.

14장, 가뭄 재앙을 예언함.

15장, 돌이킬 수 없는 재앙.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16장, 회복의 날이 있음.

1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17장, 우리를 구원하소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

9-11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12-14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흠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18장,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거절함.

18절, 피를 내어 예레미야를 침.

20절, 그를 죽이려 구덩이를 팠.

19장, 오지병(earthen-ware jar 진흙 항아리, ‘질그릇’[바른])처럼 깨뜨리실 것임.

20장, 예레미야의 고통.

2절, 성전의 유사장(chief officer)[관리장](바른)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차꼬에 채움.

8-9절,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21장, 바벨론에게 망할 것임.

22장, 예루살렘이 황폐케 될 것.

23장, 거짓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임.

5-6절,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나니라.”

21-22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달음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꿈]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24장, 무화과 두 광주리의 이상.

25장, 70년 동안 황폐케 될 것임.

9절,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utterly derstroy)(KJV, NASB)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11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2절,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멸하여 영영히 황무케 하되.”

26절, ‘세삭’(שֵׁשׁ) 왕=바벨론 왕--아트 비쉬 표현법(א=ט, ג=ש)

26장, 예레미야를 죽이려 함.

27장, 바벨론 왕을 섬기라.

1절, 여호야김(MT, KJV)→ 시드기야(3MSS, Syr, Arabic, NASB, NIV). 본문 문제. 3, 12절 참조. LXX은 1절을 생략함.

12, 17절,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살리라.

28장, 하나님의 거짓 예언.

2절,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3절, “여호와와 그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리라”--거짓 예언.

8-9절,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와 그의 보낸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월에 죽음.

29장,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

7절,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10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11절,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장래에 소망임.

12-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21-23절, “이는 그들[아합, 시드기야=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니라.”

31절, 거짓 선지자 스마야.

30장, 이스라엘의 회복.

9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11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흘렸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公道)로(צדקָהּ)[공의로] 너를 징책할 것이
 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17절,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18절,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공홀히 여길 것이다.”

23-24절, “보라, 여호와와 그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
 인[바벨론을 가리킴]의 머리를 칠 것이다. 나 여호와와 그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바벨론 심판은 이스라엘
 의 회복이 될 것.

31장, 새 언약.

8절,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
 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
 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12-14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와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다. 그 심령은 물댄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
 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
 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케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케 하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17절,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정대로 돌아오리라.”

18-19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녕히 들었노니 이
 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
 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불
 기를 찼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 고로 부끄럽고 욕

됩이니이다 하도다.”

22절,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1) 구약교회가 원수들을 이길 것, 혹은 (2) 메시아의 탄생.

31-34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1)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2)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3)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니라. (4)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의 특징: (1) 내면성(중생), (2) 특별한 관계(요 1:12), (3) 작은 자도 하나님을 앎, (4) 영원한 속죄(완전한 사죄; 단 9:24; 히 9:12; 10:10, 12, 14, 18).

32장, 이스라엘의 회복이 약속됨

37-42절,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녕히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33장, 다윗의 의로운 가지.

15-16절, “그 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메시아 예언.

34장, 시드기야 왕 때에 자유 선언을 반복함.

35장, 레갑 족속의 예.

(1)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2)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는 선조 요나답의 명을 지킴.

36장, 말씀을 책에 기록함. 유다 왕 여호야김이 책을 불태움.

22-26절, 여호야김이 겨울 궁전에서 예레미야가 바락을 통해 쓰게 한 두루마리를 화로에 태움.

37장, 예레미야가 토굴 옥에서 나옴.

15-16절,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리고 토굴 옥 음실에 여러 날 가둠.

38장, 예레미야가 진흙 구덩이에서 구출됨.

6-12절,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벳멜렉이 왕에게 청하여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서 건져냄.

39장, 예루살렘의 멸망.

주전 586년경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됨; 렘 52:6 에도 증거함). 5월 7일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음(왕하 25:8), 5월 10일 성전, 왕궁, 집들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었음(렘 52:12-14).

17-18절, 하나님께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구원을 약속하심.

40장, 총독 그다라.

41장, 그다라의 죽음.

42장,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43장, 남은 자들의 불순종.

2절, 요하난과 밋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의 말을 거짓이라고

배척함.

13절, 바벨론 왕이 애굽 땅 벤세메스(Heliopolis=태양전=온)의 주상들(תִּיּוֹצְטָן)(pillars, obelisks)을 깨뜨릴 것.

44장, 남은 자들의 우상숭배의 죄.

17-18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녕히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하늘 황후=달)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핏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45장, 바룩에게 하신 말씀.

46장, 애굽에 대한 심판.

27-28절,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 . .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내가 너를 흘렸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47장, 블레셋에 대한 말씀.

48장, 모압에 대한 말씀.

26, 29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궁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47절, “그러나 내가 말일에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49장, 암몬, 에돔, 다메섹, 엘람 등에 대한 말씀.

6절,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암시함.

39절,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암시함.

50장,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함.

예레미야

4절, 그 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올 것임.

9절,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오를 벌이고 쳐서 취할 것이라.”

19-20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41절,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오나니.”

51장,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실 것.

1절,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11절,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와 보수(報讎)하시는 것 곧 그 성전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28절, “열국 곧 메대인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두령과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41절, “슬프다, 세삭이 함락되었도다.” 세삭=바벨론. 아트바쉬법.

44절,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 내리니 열방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지리로다.” 벨=바벨론의 수호신=므로닥=말둑. 종교다원주의는 확실히 잘못임.

52장, 유다의 멸망.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11년 4월 9일에 함락됨(1년 6개월 만에)(렘 39:2). 5월 10일에 성전과 왕궁이 불 태워짐(52:12).

예레미야 애가

서론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선지자 예레미야이다. 예레미야 애가의 **주요 내용**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슬퍼함이다. 본서의 **특정적 진리**는 하나님의 진노이다. 본서에는 ‘진노,’ ‘노’라는 말이 13회, ‘원수’(גויא), ‘대적’(אָצ)이라는 말이 24회, ‘멸망,’ ‘황폐’라는 말이 19회 나온다.

본서는 **어크로스틱(acrostic)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어크로스틱 형식이란 각 절이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1, 2, 4장은 각각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는 22절로 구성되어 있고, 3장은 한 알파벳을 세 절로 이어 66절로 구성되어 있다. 2:16-17; 3:46-51; 4:16-17은 **ב**과 **מ**의 순서가 바뀌었다. 5장은 어크로스틱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참고] 구약의 장 구분은 캔터베리 대주교 스트븐 랭톤(d. 1227년)이 했고, 절 구분은 랍비 나단(1448년)이 했다고 함.

주요 내용 및 주석

1장,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을 슬퍼함.

1절,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5절,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곤고케 하셨음이라”--예루살렘 성 멸망의 원인은 유다의 죄 때문임.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므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16절,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여,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다.”

18절,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20절,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2장,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1-4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
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
지셨음이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궁핍히 여기지 아니하셨
음이며, 노하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음이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
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
든 자를 살륙하셨음이며,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
으셨도다.”

11-12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
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젓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다. 저희가 성읍 길
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
다.”

20절,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뉘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
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든 아이를 먹으며.” = 애 4:10.
이것은 레위기 26:29; 신명기 28:53에 경고된 바이었음.

3장, 선지자의 고통과 소망.

19-22절,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옵은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그러함.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 시로다.”

4장, 예루살렘 거민을 낮추심—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 문임.

2절, “시온의 아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 기장이의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4-5절, “젓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 줄 사람이 없도다. 진수를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움이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걸리운 자가 이제는 거름 더미를 안았도다.”

6절,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8절, “이제는 그 얼굴이 솟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 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10절,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 애 2:20.

13절,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므로 우리 눈이 상함이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애굽]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5장,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함.

10-11절,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 이이다.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16절,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 죄함을 인함이니이다.”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이 하옵소서.” **יְהוָה יִגְדַל וְיִגְדַּל**

에스겔

서론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상(異像)을 받아 선지자 사역을 하였다. 그의 사역 기간은 주전 592년부터 572년경이었다.

에스겔서의 **주요 내용**은 심판과 회복이다.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전쟁, 질병, 기근, 흠으심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본서에는 ‘칼’(89회), ‘황폐’(40회), ‘기근’(14회), ‘온역’(12회), 음부(31, 32장) 등의 단어가 자주 사용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18, 33장). 회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며(36장), 새 목자와 새 왕을 주시고(34, 37장), 새 성전을 주시고(40-43장), 생명강수를 주실 것이다(47장). 본서에는 ‘안다’는 말이 98회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상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알 것이다. 또 ‘인자’라는 말(אֲדָמָה-אָדָם)이 93회, ‘주 여호와’라는 말(יהוה יהוה)이 약 215회 나온다.

주요 내용 및 주석

1장, 네 생물의 형상.

1절,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異像)을 내게 보이시니.” 30년은 에스겔의 나이인 것 같다. 그발강—유브라테강 지류인 듯.

5-6절, 네 생물은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음. cf. 요한계시록 4장의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고 각각 여섯 날개가 있음.

10절, [네 생물에 대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

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사람은 지혜, 사자는 용기, 소는 충성, 독수리는 민첩함을 보이는 것 같다.

2장,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보내심.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패역한’(קָרַן)(15회; 2:5, 6, 7, 8; 3:9, 26, 27; 12:2, 2, 3, 9, 25; 17:12; 24:3; 44:6).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한 자니라.”

6-7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딤후 3:1-5; 4:3-5. 이것은 교회 밖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러할 것을 말한 것.

3장,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심.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9절,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17-19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라”--파수꾼의 사명.

4장, 예루살렘 포위의 그림.

4-6절, 390일간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고 40일간 우편으로 누워 유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심.

10-11절,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이십 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육분 일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1세겔=약 10그램, 1한=약 3.7리터.

16-17절,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근심, 걱정]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담[두려움] 중에 물을 되어 마시다가.”

5장,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함.

12절, “너의 가운데서 삼분지 일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삼분지 일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삼분지 일은 내가 사방에 홀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빠리라”--하나님의 징벌: (1) 온역과 기근, (2) 칼, (3) 홀어짐.

6장, 이스라엘이 황폐할 것임.

7절, “너희 중에서 살륙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10절,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안다’(98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안다는 것.

7장, 재앙이 임박함.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예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죽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

8장,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들.

5절,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10-11절, “내가 들어가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수메르(유브라테강 하류 갈대아 우르 지역)의 신. 함의 손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세상에서 처음 영결(장사)이었음(창 10:8-9). 그의 아들이 담무스이며 그의 어머니는 세미라미스이었음.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와의 전을 등지고 낮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9장,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함.

4절,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9절,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10장, 그룹이 심판의 불을 내어줌.

14절, 그룹들이 각기 네 면이 있음: 그룹(소), 사람, 사자, 독수리.

11장, 심판의 선언과 회복의 약속.

17절,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19-20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2장, 속히 포로로 잡혀갈 것임.

16절,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13장,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심.

2-3절,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 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와 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18절, ‘방석’--마술팔찌(NASB), 부적 띠(바른성경)

19절,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느니라.”

22절, 의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며 악인의 손을 굳게 함.

14장,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15장, 불에 던질 포도나무처럼 될 것임.

8절,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16장, 예루살렘의 음란.

30절, “이는 방자한 음부[뻔뻔한 창녀]의 행위라.”

49-50절,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17장,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

22절,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18장, 하나님의 심판의 공평성.

4-9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고리대금, usury (KJV, NIV)]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람 사이에 진실히 판단하며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녕 살리라. 나 주 여호와와 의 말이니라.” cf. 롬 2:6-8.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3절,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0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19장, 애가.

20장, 이스라엘의 패역함.

13, 21, 24절, 계명을 어기고 안식일을 더럽힘.

21장,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옴.

3절,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바벨론 왕의 칼.

22장, 이스라엘의 죄악들.

2-12절, 피흘림, 우상숭배, 부모 업신여김, 나그네 학대, 고아와 과부를 해함, 안식일 더럽힘, 우상제물, 음란, 뇌물, 변리, 토색.

25절,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

김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재(錢財)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27절,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이(利)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술을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29절,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누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23장, 행음한 두 여자와 같음.

‘오홀라’ 발음: אֹהֳלָא (1) 아홀라(KJV)--유대교 문법학자들, (2) 오홀라(NASB, NIV)--게세니우스(1768-1842, 할레대학 교수).

24장, 가마솔 비유.

피흘린 성읍, 녹슨 가마

18절, 아내의 죽음

25장, 암몬, 모압, 에돔 등에 대한 선언.

26장, 두로에 대한 선언.

27장, 두로를 위한 애가.

28장, 두로 왕에 대한 선언.

5절,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12-15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왔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사탄에 비교한지도 모르나 두로 왕에 대해 말한 것.

16절, “네 무역이 풍성하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17절,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25-26절,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이 고토에 거할지라.”

29장, 애굽에 대한 선언.

21절,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한 뿔’—여호야긴, 다니엘, 궁극적으로 메시아.

30장, 애굽의 멸망에 대한 선언.

31장, 음부로 내려감.

31-32장, 음부(גִּישׁוֹם)(31:15, 16, 17; 32:21, 27), 구덩이(גִּיב)(31:14, 16; 32:18, 23, 24, 25, 29, 30), 지하(תַּחְתֵּי אֲרָץ)(31:14, 16, 18; 32:18, 24), 무덤(קִבְרוֹת)(32:22, 23, 23, 24, 25, 26). 할례 받지 못한 자(32:19, 21, 24, 25, 26, 27, 28, 29, 30, 32). ‘음부’는 악인의 영혼의 무덤인 지옥도 가리킴.

32장, 바로에 대한 애가.

33장, 파수꾼의 사명.

7-9절. 파수꾼의 사명. = 겔 3:17-19.

34장, 부패한 목자들.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왕, 방백들, 고위 관리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10-22절, 내 양떼, 내 양의 무리, 내 양, 나의 양, 내 초장의 양 (모두 14번).

23-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메시아 예언.

35장, 세일산[에돔]에 대한 경고.

36장, 이스라엘의 회복.

24-28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1) 사죄, (2) 중생, (3) 성령의 내주(內住), (4) 하나님의 백성(양자 養子).

37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37장, 마른 뼈 환상.

1-10절, 골짜기의 마른 뼈들 → 심히 큰 군대(이스라엘의 회복).

24-25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메시아 예언.

27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38장,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움.

2-3절,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오늘날
터어키 동서의 중부)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처
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
발 왕 곡아”(NASB). ‘메섹과 두발의 상왕 곡’(KJV, NIV).

39장, 곡의 멸망.

cf. 계 20:7-10. 천년왕국 후,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

40장, 새 성전.

성전단면도--ZPEB, 5권, 635쪽. (아래 그림)

5절, 장대--6자 = 약 3미터. 문통=문 입구. 1자=50센티미터.

22절, 일곱 층계 (성전 밖에서 성전 바깥뜰로 들어오는 층계).

31절, 여덟 층계 (성전 바깥뜰에서 성전 안뜰로 들어오는 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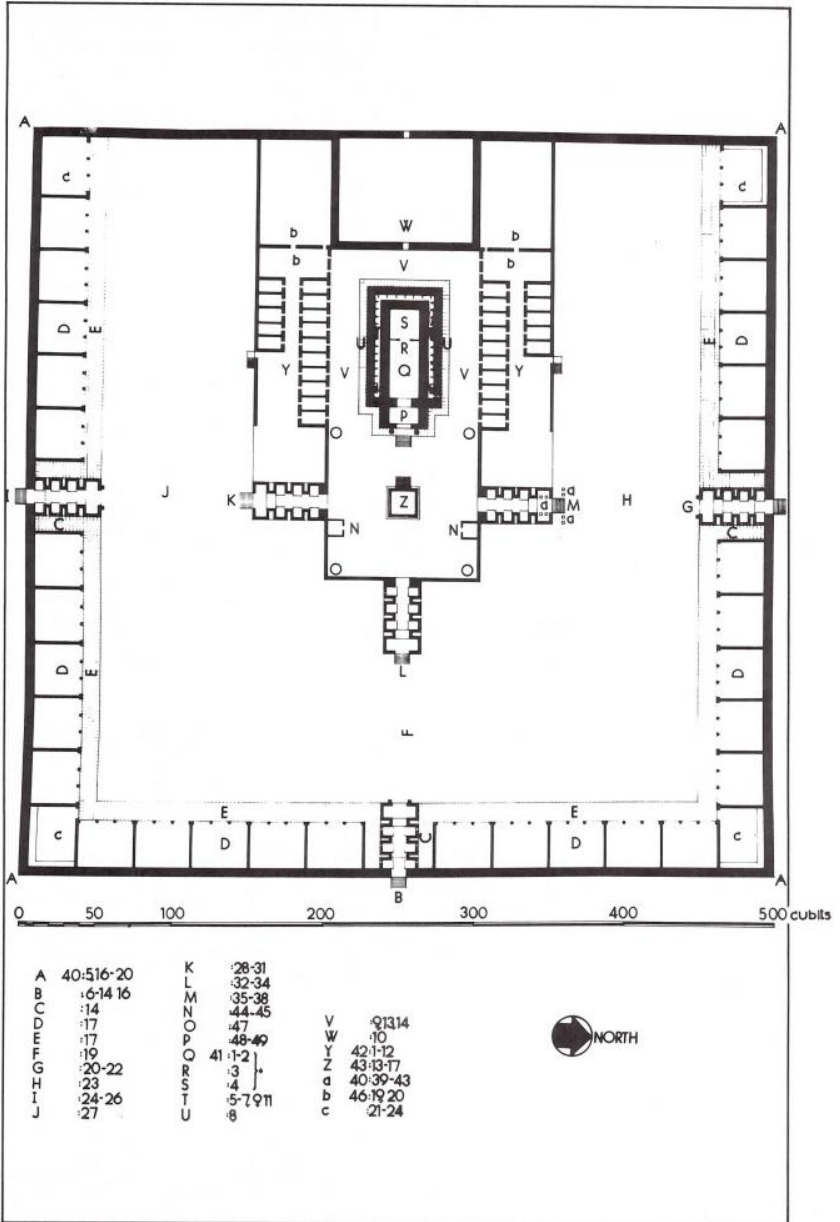
49절, 층계(아마 10개 내지 12개) (성전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오
는 층계). ISBE, 4권, 766쪽. 지대의 높이가 3미터(41:8). 그러
므로 층계가 25센티미터이면 12개, 30센티미터이면 10개일 것.

40-48장, 이스라엘 회복의 해석

* 성전의 치수, 성전의 기구들, 제사의 규례 등은 열왕기상 6장
(성전 장 27m, 광 9m, 고 13.5m)이나 민수기(28:19; 겔 45:23)
와 큰 차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에스겔서의 예언된 바
가 모세 율법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 시대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 **회복 예언 해석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첫째는 그것이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장차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봄(세대주의자들의 견해). 아취는 피의 제
사를 천년왕국에서 성례식처럼 문자 그대로 가능하다고 본다.
영거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더 과격하게 구별하여 그 예언을
이스라엘에게 성취될 것으로 이해한다.



EZEKIEL'S TEMPLE

에스겔

둘째는 그것을 교회시대나 천년왕국 혹은 천국에 대한 상징으로 봄(개혁신학의 견해). 그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신약성경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바와 같이(히 8:13),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사역에 근거해 구약의 성전 제도와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라고 봄.

41장, 성소.

성소 길이 20m, 너비 10m; 지성소 길이 10m, 너비 10m.

42장, 제사장을 위한 방들.

43장, 번제단.

높이 11자(5.5m). 밑받침 1자, 아랫울타리 2자, 윗울타리 4자,화로 4자, 밑받침 길이 18자(9m) 너비 18자.

44장, 제사장의 법들.

45장, 왕의 법들.

17절,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추지니라.” 이런 의식들의 회복은 신약성경에 허용되거나 암시되지 않았음. 히브리서 8:5, 13,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10:1,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골로새서 2:16-17,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46장, 예배의 방식. 안식일, 월삭, 매일 아침 번제.

47장,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1-5,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으로 온 세계에 충만케 될 것. 요한복음 7:37-39,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48장, 땅 분배.

35절, “그 [성읍]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יהוה שָׁמָא)라 하리라.”

8-22절, 45:1-8과 함께. 왕의 땅과 성소 (아래 그림)



다니엘

서론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부터(1:1) 주전 535년경까지(10:1) 약 70년간 사역하였다고 보인다. 본서의 **저작 연대**는 주전 6세기경이다. 본서를 주전 165년경 헬라시대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비평학자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반박된다.

첫째는 역사적인 문제들이다. 비평학자들은 본서가 선지서들에 속하지 않고 성문서들에 속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귀환 후, 말라기서보다 더 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문서들에 속하는 것 중에도 매우 고대에 쓰여진 것들이 있다. 욥기나, 시편들 중 다윗의 글이 그러하다. 마소라 학자들이 다니엘서를 성문서들에 둔 것은 다니엘이 선지자보다는 정치인으로 활동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니엘서에서 역사적으로 잘못이라고 주장된 부분들 중에는 고고학적 발굴로 반증(反證)된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벨사살 왕의 언급은 후대에 기록된 오류라고 주장되었으나, 한 썩기문자 토판의 발굴로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더스의 아들이었으며 부친이 북 아라비아의 데마에 군사기지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바벨론 제국의 북부 변방을 지키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5:7, 16)는 그의 말도 잘 이해된다.

둘째는 문학적, 언어적 문제이다. 본서의 아람어들은 6세기에 쓰여진 것보다 훨씬 후대에 쓰여졌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5세기의 아람어 문서를 발견했는데 그것에 의하면 다니엘서는 에스라서와 같이 궁중 아람어로 쓰여진 것으로서 그것은 당시에 근동 아시아 전역에서 통용되고 있던 공적인 혹은 문학적인 글들이었음이 상당히 확정적으로 판명되었다고 한다(아취, 구약총론, 447쪽).

셋째는 신학적 문제이다. 본서는 천사들, 죽은 자들의 부활, 최후의 심판, 메시아 왕국 등에 대한 교리적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신구약 중간시대의 묵시문학의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니엘서의 후대 저작성을 나타내지 않는 까닭은 그러한 개념과 사상들이 구약성경에 얼마든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천사에 관해서는 창세기에서부터 나오고 스가랴서에서도 두드러진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욥기나 이사야서에도 나온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의 글들에 빈번히 나온다. 메시아 예언들은 처음부터 성경의 많은 곳에서 나온다.

넷째는 주석적 문제이다. 비평가들은 본서 후반부의 예언들을 믿지 않으므로 그것을 마카비 시대에 쓴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과 능력을 부정하는 사두개파적 불신앙에 불과하다. 마카비 시대설이 불합리한 한 예로, 다니엘서 2장의 네 번째 왕국(2:40-44)과 7장의 내용(7:7)이 로마 제국 외에 다른 것을 가리키기 어려움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예언의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될 것이며 그것은 즉시 마카비 시대설의 불신앙적 생각을 반박할 것이다.

다니엘서의 주요 내용은 다니엘에게 주신 기적과 계시이다.

본서의 특징적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본서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일라아 אֱלֹהֵי)(4:17, 24, 25, 32, 34; 7:25)(엘론 אֱלֹהֵי) (7:18, 22, 35, 27),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엘라하 일라아 אֱלֹהֵי אֱלֹהִים)(3:26; 4:2; 5:18, 21)이라는 말이 14회, ‘하늘의 하나님’(2:37, 44) 혹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2:19, 28)이라는 말이 4회, ‘모든 신의 신’(2:47)이라는 말이 1회 나온다.

주요 내용 및 주석

[1-6장, 기적들]

1장,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심.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하나님의 주권. 주전 605년/606년.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왜? (1) 부정한 음식, (2) 우상제물, (3) 분수에 맞지 않은 부요.

2장,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 꿈, 뜨인 돌, 하나님의 나라.

2:4-7:28, 아람어

32-33절, 금 머리, 은 가슴과 팔, 놋 배와 넓적다리, 철 종아리, 철과 진흙이 섞인 발.

37-43절, 해석--금-바벨론, 은-메데-파사, 놋-헬라, 철-로마.

34-35절,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워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메시아의 초림, 동정녀 탄생, 복음 사역과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1:44,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흠으리라.” 베드로전서 2:4-5,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에베소서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

서 멀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로마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임(신약교회). 하나님 나라의 특징: (1) 기원, (2) 운 영법(하나님의 법), (3) 통치자(하나님), (4) 힘(매우 강력함), (5) 영토(세계적임), (8) 기간(영원함) (Poole).

3장, 풀무불 기적.

1절, 금신상: 고 60규빗(27미터), 광 6규빗(2.7미터). 뽕족탑(첨탑, 오벨리스크)

16-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 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25절,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7절,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확인.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 탄 냄새도 없었음.

4장, 느부갓네살을 낮춤.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25, 32, 35절에도 나옴. 하나님께서 임의로 사람에게 왕권을 주심.

27절, “그러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קָרַח)[끊어버리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끊어버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끊어버리다’ break off (KJV),

break away from (NASB), renounce (NIV)].

5장, 분벽의 글씨.

5절, “그때에[그 즉시](NASB, NIV) 사람의 손가락(אֶרְבָּעַת יָדַי)[손 바닥(BDB), 손등(NASB)]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7절, **셋째 치리자**--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더스(주전 555-539년)의 장자이었다. 나보니더스는 중앙 아라비아 테마에 원정 가서 10년간 머물었다.

[참고] 느부갓네살(주전 605-562년), 에윌므로닥(주전 562-560년)(아들), 네르갈 살레셀(주전 560-556년)(처남), 라바쉬 말дук(주전 556년)(아들), 나보니더스(주전 556-539년)(형명).

23절, “왕의 모든 길을 걱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하나님의 걱정.

25절,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 מְנֵי מְנֵי וְכֹלֵי וְכֹלֵי מְנֵי מְנֵי Peal ptc pass m s. פְּרָסִין פְּרָסִין Peal ptc act m pl.

מְנֵי (מְנֵי) number. כֹּלֵי weigh. פְּרָסִין divide, break in two.

31절, “매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매대 사람 다리오**’는 (1) 고레스의 다른 이름이든지(그러나 9:1; 10:1; 11:1; 특히 6:28에 비추어 어려움이 있음), (2) 고레스 아래서 바벨론과 강 저편의 통치자 구바루를 가리킬 것(그러나 6:25에 어려움이 있음).

6장, 사자굴 기적.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다니엘의 경건생활.

23절,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혹은 ‘즉’](NIV margin)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7-12장, 계시들]

7장, 네 짐승의 이상, 작은 뿔.

7-8절, 네 짐승, 열 뿔, 작은 뿔--네 짐승은 바벨론, 메대-파사, 헬라, 로마의 네 나라를 가리키고, 열 뿔은 로마의 열 왕(아구스도, 디베료, 칼리굴라, 클라우디오, 네로, 갈바, 오도, 비텔리오, 베스타시안, 디도), 작은 뿔은 도미시안을 가리킨다고 봄.

13-14절, 인자 같은 이[메시아]에게 왕권을 주심.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신약교회.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25절, 한 때, 두 때, 반 때--핍박의 시대.

26-27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8장, 숫양과 숫염소의 이상.

숫양--메대-파사(20절), 숫염소--헬라(21절)(알렉산더 대왕).

8절,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북] 리시마커스 왕국(소아시아, 트레이스, 비두니아 지역), [남] 프톨레미 왕국(애굽), [동] 실루커스 왕국(수리아, 바벨론, 인도), [서] 캐산더 왕국(헬라, 마케도나).

9절, 작은 뿔--실루커스 왕국(수리아)의 왕 안티오커스 4세(에피파네스)(주전 175-163년)를 가리킴.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2,300주야 = 6년 반 (주전 171년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가 죽임 당한 때로부터 주전 163년 안티오커스가 죽은 해까지).

25절,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내장에 벌

레가 먹어 죽음.

9장, 다니엘의 기도와 70이레.

24-27절, 70이레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메시아의 단번 대속사역.

* **69이레**(483년 후에 메시아가 죽음) 계산에 대한 두 가지 견해:

- (1)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칙령을 내린 때(주전 445년)로부터 음력으로 계산하면 (음력 483년은 양력 469년; 음력 1년은 354일) 메시아의 공생애 시작이 주후 25년경이 됨.
- (2)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칙령을 내린 때(주전 457년)로부터 양력으로 계산하면 주후 26년경이 됨.

25절, ‘해자(核字)’--성 밖으로 둘러 판 못(도시 외곽 방위선).

27a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가’--메시아. 구약의 제사 제도의 폐지.

27b절,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KJV-“가증한 것들의 확산 때문에 그가 그것을 황폐케 하되 심지어 마지막까지 할 것이며 작성된 것이 황폐한 것 위에 부어지리라”; NASB-“황폐케 하는 자가 가증한 것들의 날개 위에 올 것이니 작성된 완전한 멸망이 황폐케 하는 자에게 부어질 때까지니라.”--로마의 디도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

10장, 큰 전쟁에 관한 이상.

6절,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예수 그리스도.

13, 20-21절, 바사국군--천사.

11장, 북방 왕(수리아)과 남방 왕(에굽)의 전쟁.

2절, “보라, 바사에서 또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세 왕--고레스(주전 537-529년), 캄비세스(주전 529-522년), 다리오 1세(히스타스피스)(주전 522-486년); 넷째--크셀크세스(아하수에로)(주전 426-464년). cf. 아닥사스다 1세(주전 464-424년), 다리오 2세(주전 423-404년)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알렉산더 대왕(주전 356-323년).

5절,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프톨레미 1세.

6절,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의 딸[베레니케]이 북방 왕[안티오커스 2세]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15절, “이에 북방 왕[안티오커스 3세]은 와서 토성을 쌓고.”

18절, “한 대장[로마 장군 루시어스 스키피오]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21절,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비열한, 경멸할 만한) 사람[안티오커스 4세]이라. . . . 평안한 때를 타서 케홀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27절,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29절, “작정된 기한에.” 35절, “작정된 기한이.” 36절, “작정된 일이.”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주전 167년 유태어 신상을 성소에 세움.

32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유다 마카비우스의 반란. 하누카 절기(성전재봉헌)=수전절(요 10:22).

12장, 마지막 때의 예언.

1절, “그때에 . . .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

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의인과 악인의 부활(요 5:29).

4절,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말세의 특징.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3년 반. 안티오쿠스 4세(에피파네스)의 핍박 기간.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인내를 교훈하신 것 같음.

호세아

서론

선지자 호세아가 사역한 **연대**는 주전 760-724년경이다.

본서의 **주요 내용**은 심판과 회복이다. 심판에 대해, 심판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 즉 우상숭배의 죄, 살인, 간음, 도적질 등의 죄이며, 심판의 방식은 칼과 포로됨, 기근, 수치, 땅의 황폐케 됨 등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할 것이다(12장). 그러나 본서는 회복에 대해서도 말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될 것이다(2, 11장). 다윗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3장).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믿고 순종할 것이다(5, 6, 10장). 이스라엘은 포로생활에서 돌아오며(3, 11장) 하나님과 연합하며(2장) 복과 번영을 누리며(2, 14장)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다(13장).

본서의 특징적 진리는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이다. 11:8, “에브라 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

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 붙듯하도다.”

주요 내용 및 주석

1장, 호세아의 가정.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이 비유라거나 후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는 해석은 자연스럽지 않다.

2장, 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한 심판. 그러나 긍휼.

6절,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9절,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11절, “내가 그 모든 희락과 . . . 모든 절기를 폐하겠고.”

14절, ‘개유하여’--타일러.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3장, 이스라엘의 회복,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할 것.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5절,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하므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메시아 예언.

4장, 이스라엘의 죄악상.

1-2절, 진실이 없음, 인애도 없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음, 저주, 사위(詐僞)[속임], 살인, 투절(偷竊)[도적질], 간음, 강포.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5장, 이스라엘에 내릴 심판.

6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사보다 더 귀한 것은 자비와 참 지식.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삼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메시아의 부활을 암시함.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KJV, MT). '늦은 비'(שִׁקְלָה)--곡식 추수 전에(3-4월에) 이삭을 여물게 함. '이른 비'(חַיִּי)--가을에 곡식 모종 전에(10월 중순부터) 내림.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7장, 이스라엘의 죄악들.

1-4절, 궤사(거짓), 도적질, 간음.

8절,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결길로 감.

8장, 이방에 삼키움.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9장, 죄를 벌하심.

11-12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 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10장, 하나님을 찾고 의와 긍휼을 행할 것.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11장, 이스라엘의 패역과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궤홀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대[에워쌌으나 유다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신실하도다](원문).”

12장, 행위대로 보응하심.

6절,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13장, 이스라엘의 패망.

3절,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14절, “내가 저희를 음부(陰府)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救贖)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14장, 이스라엘의 회복.

1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4절,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5-7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 . .”

요엘

서론

요엘(‘여호와와는 하나님이사라’)의 **저작 연대**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하던 요아스 왕의 유년시절인 주전 830년경일 것이다. 요엘 3:4, 19에 두로와 시돈, 블레셋, 애굽, 에돔 등의 언급은 요아스 시대에 조화된다. 그 시대 후에는 유다가 이런 원수들에게 직면한 경우가 없다. 자유주의자들은 3:1의 “유다의 사로잡힌 자,” 3:6의 ‘헬라 족속’에 대한 언급 등에 근거해 바벨론 포로 후라고 본다. 그러나 헬라인이 바벨론 포로 후에만 이스라엘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다. 주전 8세기의 앗수르 비문들에도 헬라인이 언급된다.

요엘의 **주요 내용**은 심판과 회복이다.

주요 내용 및 주석

1장, 메뚜기 재앙.

4절, “팻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늦이 먹고 늦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문자 그대로 메뚜기 재앙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2:4-5, 7).

2장, 하나님의 긍휼하심, 회개의 요청, 회복, 성령의 약속.

4-5, 7절,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개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향오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잡고 오르며”--메뚜기 재앙을 묘사함.

12-13절,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15-16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아모스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젓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23-2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다.” ‘늦은비’(שִׁפְטָה)--추수 전 이삭을 여물게 함(3-4월). ‘이른비’(מַיִם)--가을에 모종 전에 내림(10월 중순부터).

28-29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신약시대.

3장, 만국을 심판하심, 이스라엘의 회복.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심문, 심판]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홀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열국 심판(마 25:31-33).

18절,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젓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아모스

서론

아모스는 목자이며 뽕나무 재배자이었다(7:14). 그의 사역의 때는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주전 793-753년경)의 통치 후반부인 주전 760-755년경이다.

아모스의 주요 내용도 심판과 회복이다. 심판에 대하여, 심판자는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와 통치자이시며(3, 4장), 심판의 대상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다른 5개 나라들이며(1, 2장), 심판의 원인은 그들의 죄인데,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죄이며,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 불의와 이기적임 등이며, 심판의 방식은 칼과 포로, 불, 기근, 질병 등이다(1, 4, 5장).

주요 내용 및 주석

1장, 각 나라들의 죄와 심판.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등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친 악들에 대해 벌하심.

2장,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4-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의 따라가던 거짓것에 미혹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6-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父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3장, 죄에 대한 징벌.

3절, “**두 사람이 의함지(יְהַיְיִם)**[약속하여 만나지](BDB, NASB)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동행을 위한 조건.

1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

에 비단 방석에 앉은(BDB)[혹은 ‘다메섹에서 곁상에 앉은’]
(KB, 많은 역본들, KJV, NIV) 이스라엘 자손이 견저냄을 입으
리라.”

4장, 이스라엘이 회개치 않음.

6, 8, 9, 10, 11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기근, 가뭄, 각종 재앙, 전염병 등에도 불구하고.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5장, 회개 촉구.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14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23절,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
가 듣지 아니하리라.”
24절,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도.”
26절, “너희가 너희 왕 식곳[סֹבֹתִי 바벨론 신]과 너희 우상 기운
[גִּיּוֹןֵי 이방신, Saturn 토성]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
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cf. 행 7:42-42, MT와
다르고 LXX와 비슷함.

6장, 안일, 사치, 무관심의 죄.

3-4절, “너희는 흥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양
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
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7장, 황충, 불, 다림줄의 환상.

8장, 여름 실과의 환상, 말씀의 기근.

1-2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 실과(קִיץ) 한 광주리를 보
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 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קֵץ)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11절,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9장,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회복.

1-4절,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숴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륙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과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울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륙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1절,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절,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 업으로 얻게 하리라”—이방인들의 구원.

14-15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바다(הַבַּיִת) < וְבָרַךְ

서론

오바다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겨우 21절이다.

오바다의 **저작 연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다.

(1) 예루살렘 멸망 이후로 보는 견해--20절, “예루살렘의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는 말씀에 근거하지만, 이 구절이 꼭 그때를 가리키지 않을 수도 있음.

(2) 아하스 시대(주전 743-728년)로 보는 견해--그러나 11-12절과 역대하 28:17-18는 조화되기 어려워 보임. 11절,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12절, 방관함. 역대하 28:17-18,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벵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딘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3) 여호람 시대(주전 848-841년)로 보는 견해--11절은 열왕기하 8:20과 역대하 21:16-17과 조화되는 것 같음. 11절,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역대하 21:16-17,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본서의 **주요 내용**은 에돔에 대한 심판이다.

주요 내용 및 주석

- 1- 9절, 에돔의 멸망이 다가옴.
- 10-14절, 멸망의 이유--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였으므로.
- 15-21절, 주의 날이 임할 것--에돔의 멸망, 메시아 왕국.

15절, “여호와와의 만국을 멸할 날이 가까왔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세상의 만국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구원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암시함.

요나

서론

요나의 **저작 연대**는 여로보암 2세(주전 793-753년) 때인 주전 760년경이라고 본다(왕하 14:25).

요나의 **진정성**에 대해, (1) 비평가들은 요나는 앗수르 왕을 니스웨 왕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성경에 ‘사마리아 왕’(왕상 21:1), ‘다메섹 왕’(대하 24:23)이라는 표현이 나옴.

(2) 니스웨가 큰 성이었다(נִישְׁוֹתַי 3:3 원문)는 표현은 니스웨 성이 전부터 큰 성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3) 니스웨 성의 크기를 ‘3일 길’이라고 말한 것(3:3)은 전도하면서 그 성을 통과하는 데 사흘이 걸린다는 뜻일 것. 보통 남자가 3일에 100킬로미터를 걸으며 역사상 그렇게 큰 도시는 없었다고 함.

(4) 예수께서는 요나의 사건과 니스웨의 회개에 대해 증거하셨음.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어나와”(마 12:40-41). 그것은 요나서의 진정성을 밝히 증거함.

요나의 **주요 내용**은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다.

본서의 **특정적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1:4, 17; 2:9, 10; 3:10; 4:6-8)과 하나님의 긍휼(2:2; 3:10; 4:11)이다.

주요 내용 및 주석

1장, 사명의 회피와 하나님의 징벌.

3절, 다시스--(1) 스페인의 Tartessus (알브라이트, 여러 학자들), (2) 이태리 서쪽의 Sardinia섬 (아하로니), (3) 소아시아 동남부 길리기아 Tarsus (요세푸스, 매튜 풀)

4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삼일 삼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2장, 요나의 기도--물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함(2, 9절).

2절, ‘스올의 뱃속’--바다 속.

9절,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cf. 시편 3:8.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 요나의 순종과 니느웨의 회개.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장,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대답.

1-2절, 왜 불평?--잘못된 선민 의식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용서를 싫어한 것 같음.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녕쿨을 준비하사.”

미가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10-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녕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명이요 유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나?”—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미가

서론

미가의 사역 **연대**는 이사야의 사역 초기와 같은 때, 즉 아하스(주전 742-728년)와 히스기야(주전 728-697년)의 통치 시대이었다(1절). 미가와 이사야에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말세에 메시아 왕국이 시온 산 중심으로 세워지고 온 세계가 그리로 올 것이며 온 세계에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다(미 4:1-3; 사 2:2-4).

미가의 **주요 내용**도 심판과 회복이다. 심판에 대해, 심판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특히 우상숭배, 살인, 간음, 불의의 죄이며, 심판의 방식은 질병, 칼, 포로로 잡힘 등이다. 회복에 대해, 회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이며(7장), 회복의 수단은 메시아이며(5장), 회복의 방식은 이스라엘을 모으심, 평화를 주심(2, 4, 5, 7장), 죄를 용서하심, 하나님을 경외함(7장) 등이다.

주요 내용 및 주석

1장,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심.

3-5절,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
지기를 불 앞의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10-12절, 베들레아브라(티끌의 집), 사빌(아름다움), 마룻(쌈).

16절, “네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2장, 심판과 회복.

7절, ‘편급’--조급.

12절, “야곱아, 내가 정녕히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녕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13절, ‘들렐’--(한) ‘들릴’X, → ‘시끄러울’

3장, 치리자들과 선지자들의 죄악.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니”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 . .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11-12절, “그 두령은 너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샅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
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
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 같이 값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4장, 이스라엘의 회복.

1절,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
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
이라”--이사야 2:2와 같음.

5장,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오실 것.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
은 상고에, 태초에(עוֹלָם מֵיְמֵי)[영원 전에]니라.”

4절,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7-8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

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6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仁慈)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7장,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긍휼(죄 사유하심).

5-6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11-13절,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앗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지경이 넓혀질 것.

18-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나훔

나훔

서론

나훔은 주전 661년경에 일어난 앓수르의 앓술바니팔 군대 앞에서 애굽 노아몬(애굽의 옛수도 더베)의 멸망을 과거의 사건으로 언급하며(3:8), 또 주전 612년의 니느웨의 멸망을 미래의 사건으로 예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서는 그 어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나훔의 **주요 내용**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다. 무자비하고 잔인한 니느웨 곧 앓수르 제국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이 시행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본서의 주된 메시지이다.

나훔의 **특징적 진리**는 하나님의 진노이다.

주요 내용 및 주석

1장, 하나님의 진노하심.

1절, 나훔의 고향 엘고스--갈릴리의 한 마을.

가버나움 Καπερναούμ < Καφαρναούμ

כַּפְרִנָּה --village נַחֲמוּם --Nachum, consolation

2절, “여호와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6절,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2장, 니느웨의 파멸.

1절, “파괴하는 자[바벨론 군대]가 네[앓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치러 올라왔나니.”

13절,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3장, 니스웨의 죄악과 황폐.

1절, “화 있을진저, ‘피 성이여, 그 속에서는 궤홀과 강포가 가득 하며 늑탈[약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5절,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서.”

8절, 노아몬--남부 애굽의 수도이었던 더베
‘성루’--성 둘레의 흙담

하박국

서론

하박국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사역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6에 갈대아 사람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야김 시대에 갈대아인들의 존재가 무서운 존재로 이미 알려져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주전 606년 혹은 607년경에 사역했을 것이다.

하박국의 **주요 내용**도 심판과 회복이다.

주요 내용 및 주석

1장, 하박국의 질문.

2-4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급게 행함[나타남](NASB, NIV)이니이다.”

5-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

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12절,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2장, 하나님의 대답.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9-20절,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3장, 하박국의 기도.

1절, ‘시기오놏’(시편 7편의 표제어에도 있음)--정확한 뜻을 모름 (BDB). KB--‘애도가’(?).

2절,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7-19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나니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영장--찬양대장.

스바나

서론

스바나는 므낫세와 아몬의 영향으로 매우 부패되었던 요시아 시대 초반, 즉 주전 621년 부흥운동 이전에, 아마 주전 640-630년경에 사역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스바나의 **주요 내용**도 심판과 회복이다.

주요 내용 및 주석

1장, 땅을 진멸하심.

2-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와 나의 말이니라.”

4절, 그마립--우상 제사장들(NASB, NIV).

5-6절,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좃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말감=밀곰=물레. 혼합주의=종교다원주의.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와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2장, 열방이 황폐케 될 것.

3절, “여호와와 그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9절, “나의 끼친[남긴]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학개

3장, 이스라엘의 회복

9절,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케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이방인의 구원.

12-13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의 중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궤환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14-15절,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학개

서론

구약의 모든 책 중에서 이 책만 비평가들의 비평에서 자유롭다. 선지자 학개가 사역한 때는 다리오 왕 2년 즉 주전 520년이다. 에스라 6:14,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殿)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7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7번), ‘만군의 여호와’(1번). 모두 15번.

학개의 주요 내용은 성전 건축이다.

주요 내용 및 주석

1장, 책망과 명령.

4-6절,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나? . . .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 . . 일꾼이 샅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7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흥분시키다’(עורר) -- stir up(KJV, NASB, NIV), 분발시키다. 북돋우시다.

2장, 격려와 약속.

4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그들이 만국의 보화(wealth)를 가지고 올 것이며](NASB) 내가 영광으로 이 전(殿)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약시대, 세계 복음화를 가리켰다고 봄. ‘보배’ תְּהִלָּה -- the desirable, precious things(BDB), the wealth(NASB), the desire(KJV), the desired(NIV).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9절, “이 전(殿)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2절, “열국의 보좌를 엮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23절, 그 날에 스룹바벨을 인을 삼으심--메시아의 예표로 보임.

스가라

서론

선지자 스가라는 주전 519-475년경에 사역했다고 보인다.

스가라서의 **주요 내용**도 심판과 회복이다. 심판의 대상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며(1, 2, 11장), 심판의 원인은 죄, 특히 압제, 거짓된 위로, 우상숭배의 죄이다. 회복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며 그 때 죄를 정결케 하시고(3, 5장) 형식주의로부터 돌이켜 의를 행하게 하시며 성전이 재건된다. 특히 메시아께서는 순, 하나님의 종, 구주, 고난 당하시는 자로 증거된다. 회복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이 미친다(8, 14장). 이 일은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49회나 나옴. ‘만군’--**תיקופ** (1) 하늘의 천군 천사들, (2)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 (3) 하늘의 별들. (1), (2)의 뜻이라고 봄.

스가라의 **특징적 진리**는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다. 또 본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온다. 본서는 메시아를 순(3:8), 왕과 제사장(6:13)으로 말하며, 또 나귀 타고 입성하심(9:9-10), 배척당하심(11:12-13), 못박히심(12:10), 수난 당하심(13:7), 재림하심(14장) 등에 대해 예언한다.

주요 내용 및 주석

1장, 말들의 환상, 네 뿔과 네 공장의 환상.

6절, ‘돌쳐’--돌이켜

8절, 화석류 나무(myrtle tree)--도금양

12절,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1차 포로- 주전 606년, 유다 멸망- 주전 586년, 고레스 원년- 주전 536년(1차 포로로부터 보면, 70년이 됨), 스룹바벨 성전 완성- 주전 516년

(유다 멸망으로부터 보면, 70년이 됨), 예루살렘 성 재건- 주전 445년.

14-15절,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16-17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 . . 여호와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18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징벌의 도구.

19-21절, ‘헤친’ ‘헤쳐서’ ‘헤친’--홀어버린, 홀어버려서.

20절, ‘공장(工匠)[장인들; 목공, 석공, 철공 등]--회복의 도구.

2장, 척량줄 환상.

4-5절,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10-11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세계 복음화=신약시대.

3장, 대제사장의 환상, 순, 메시아의 단번 속죄.

순(체마크 **נֶזֶם**)--‘가지’(Branch).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사죄와 칭의.

8절, “내가 내 종 순(**נֶזֶם**)[가지]을 나게 하리라”--메시아 예언.

9절,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메시아의 고난. 대속사역.

4장, 순금 등대의 환상, 주께서 성전 건축을 이루실 것.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성전 건축.

3, 11절, 두 감람나무--아마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이 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

5장,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의 환상.

두루마리--장 20규빗(9미터), 광 10규빗(4.5미터). 율법책, 저주의 말씀.

에바--이스라엘의 악을 멀리 옮기심. 1에바=약 22리터.

6장, 네 병거의 환상, 순이라는 사람.

홍마--전쟁, 흑마--죽음, 백마--심판의 승리, 얼룩진 말--여러 가지 재앙.

12-13절,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자기 보좌에서 제사장이 되리니](KJV, NAS, NIV)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15절, ‘먼 데 사람’--이방인.

7장, 순종이 금식보다 중요함.

9-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관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하나님의 뜻은 진실, 의, 인애와 긍휼.

8장, 예루살렘의 미래의 모습.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겠고 만군의 여호와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게 되리라.”

16-17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9장, 구원하시는 왕이 오심.

9-10절,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메시아 예언.

10장, 이스라엘의 회복.

1절, ‘봄비’=3, 4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삭을 여물게 함. ‘늦은비’(זֶמְלָה)라고도 함. 한편, ‘가을 혹은 겨울비’는 10월 이후에 내리는 비인데, 경작을 위한 것. ‘이른비’(יֹרֵד) 혹은 מוֹרֵד)라고 함. 유대땅은 겨울이 우기(雨期)임.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같이 번성하리라.”

11장, 목자들에 대한 예언.

8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세 목자--제사장, 선지자, 왕을 상징하는 듯.

12-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雇價)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삼십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해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삼십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12장, 유다의 구원.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나를, **לְאֵלֵינוּ**](KJV, NASB, NIV)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3장, 죄 씻는 샘.

1절,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14장,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심.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방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

20절,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술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것이 거룩해질 것임.

말라기

서론

말라기의 **저자**는 말라기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소先知者들은 초두에 항상 저자가 언급된다. 말라기가 단지 ‘나의 사자’라는 뜻이 주장(아이스펠트)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본서의 **저작 연대**는 느헤미야의 두 번째 통치 때(주전 433-430년) 즈임인 것 같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방종(1:6), 십일조의 소홀(3:7, 12), 이방인과의 혼혈(2:10-16) 등의 내용과 느헤미야 13장을 비교할 때 추측된다.

말라기의 **주요 내용**도 심판과 회복이다. 심판에 대하여, 심판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 특히 하나님의 이름과 예배를 멸시하는 죄이며(1, 2장), 심판의 방식은 저주이다(1, 2, 3, 4장). 회복에 대해, 회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불변하심(3장), 선택의 사랑이며(1장), 회복의 중보는 언약의 사자이며(3장), 회복의 방식은 죄를 정결케 하며(3장),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4장).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는 표현이 24회 가량 나온다.

주요 내용 및 주석

1장, 부패된 제물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러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납하겠느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

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1절,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13절,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쾌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2장, 이웃에게 신실치 않음.

14-16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쩐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궤사를 행하도다. 여호와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궤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옷으로 학대를 가리우는 자를](MT, KJV)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궤사를 행치 말지니라

3장, 언약의 사자가 오심, 십일조에 대한 강조.

1절,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8-1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말라기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십일조는 구약의 율법 가운데 의식법에 속할 것이며 그 법 자체는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고 보이나, 구약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신약 성도는 구약의 모범을 따라 십일조 이상을 바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חֵלֶק)(출 19:5)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4장, 주의 날.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의로운 해’--메시아(사 9:2; 요 1:9; 8:12).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세례 요한(마 11:14; 눅 1:17).

구약 연구에 유익한 책들

[히브리어 성경]

[BH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Edited by Karl Elliger and Wilhelm Rudolph. 5th ed. Deutsche Biblegesellschaft, 1997 [1967/77]. BH Rudolf Kittel 3판 이하는 본문이 같음.

The Holy Scriptures of the Old Testament: Hebrew and English.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n. d.] 히브리어 전통본문.

[히브리어 사전 및 단어 연구]

[BDB] *Brown, Driver, and 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07. Gesenius의 사전에 근거한 것임.

[KB] *Lexicon in Veteris Testamenti Libros*. Edited by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ner. Eerdmans, 1951.

Davidson, B. *The Analytical Hebrew and Chaldee Lexicon*. London: Samuel Bagster and Sons, 1963.

Feyerabend, Karl. *Langenscheidt's Pocket Hebrew Dictionary to the Old Testament*. Langenscheidt, n. d.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Edited by R. L. Harris, G. L. Archer, Jr., and B. K. Waltke. 2 Vols. Moody Press, 1980.

[히브리어 문법책]

이순환 편. 성서 히브리어. 한국기독교교육연구회, 1972.

Gesenius' Hebrew Grammar. Edited by E. Kautzsch. 2nd English Edition. Oxford Press, 1910.

[구약 총론]

Green, William Henry. *General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The Canon*. 1898; reprint ed., Baker, 1980.

Unger, Merrill F. *Introductory Guide to the Old Testament*. Zondervan, 1951.

Young, Edward J.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1949; rev. ed.

Eerdmans, 1960.

Archer, Gleason L., Jr. *A Survey of Old Testament Introduction*. 1964;
rev. ed. Moody, 1974.

Harrison, R. K.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Eerdmans, 1969.

[구약 고고학 및 지리]

Unger, Merrill F. *Archaeology and the Old Testament*. Zondervan, 1954.

Aharoni, Yohanan.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rev.
ed. Westminster, 1979.

Aharoni, Yohanan, and Michael Avi-Yonah. *The Macmillan Bible Atlas*.
rev. ed. Macmillan, 1977.

[구약 영감 및 무오성]

박형룡. 교의신학. 제1권: 서론.

*Harris, R. Laird. *Inspiration and Canonicity of the Bible*. Zondervan,
1957.

Arndt, William. *Bible Difficulties and Seeming Contradiction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87.

Haley, John W. *An Examination of the Alleged Discrepancies of the
Bible*. [1874]; reprint ed., Baker, 1977.

Young, Edward J. *Thy Word Is Truth*. Eerdmans, 1957.

[성경 사전]

The New Bible Dictionary. Inter-Varsity Press, 1962.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rev. ed., 4 vols. Eerd-
mans, 1979-1988.

The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5 vols. Zondervan,
1975.

[기타 참고]

윌톤, 존 H. 차트 구약.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Matthew Poole, Matthew Henry, Keil-Delitsch, Jamieson-Fausset-
Brown, 박윤선, 이병규, 김효성 등의 주석.

복습 문제

1. 이사야 40장 이후가 팔레스틴에서 기록되었다는 내적 증거는?
2. 이사야 40장 이후가 포로 시대 전에 기록되었다는 중요한 증거는?
3. 이사야서의 통일성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명칭은?
4. 이사야서의 통일성에 대한 신약적 증거의 요점은 무엇인가?
5. 이사야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6. 이사야의 장 이름--사 9장, 53장
7. 이사야의 주요 구절--사 9:6-7; 40:30-31; 43:7; 49:15-16; 64:6
7. 이사야 구절 해석--사 7:9; 8:20; 19:24; 52:15; 54:1-3
8. 예레미야의 특징적 계시 진리는 무엇인가?
9. 예레미야의 장 이름--렘 31장
10. 예레미야의 주요 구절--렘 6:16; 8:7; 12:5; 13:23; 17:9
11.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적 주제는 무엇인가?
12. 예레미야 애가의 주요 구절--애 3:19-22; 5:21
13. 에스겔의 장 이름--겔 36장, 37장, 47장.
14. 에스겔 40-48장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은 무엇인가?
15. 다니엘서의 특징적 계시 진리는 무엇인가?
16. 다니엘서의 장 이름--단 2장, 3장, 5장, 6장, 9장
17. 다니엘 5장의 벨사살은 누구인가?
18. 다니엘 5장의 '메대 사람 다리오'는 누구인가?
19. 다니엘 9장의 69이레 계산에 대한 두 가지 견해는?
20.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21. 호세아서의 특징적 진리는 무엇인가?
22. 호세아서의 주요 구절--호 6:6; 11:8

복습 문제

23. 요엘서 1장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24. 아모스서의 주요 구절--암 3:3; 5:14; 8:11
25. 오바다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26. 요나서의 특징적 진리는 무엇인가?
27. 미가서의 주요 구절--미 5:2; 6:8
28. 나훔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29. 나훔서의 특징적 진리는 무엇인가?
30. 하박국서의 주요 구절--합 2:4; 3:17-19
31. 스바냐서의 연대는 언제쯤인가?
32. 스바냐서의 주요 구절--습 3:17
33. 바벨론 포로 귀환 후의 세 선지자들은?
34. 학개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35. 스가랴서의 특징적 진리는 무엇인가?
36. 스가랴서의 주요 구절--스 3:9; 4:6; 6:12-13; 9:9
37. 말라기서의 주요 구절--말 3:8